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새*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langara 49th station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학교는 생각 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이며 시설도 좋습니다. 학교 내에는 스타벅스, 트리플오, 팀홀튼, 서브웨이 등 점心和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여름방학이라서 그런지 학교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첫날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토익과 비슷한 형태의 시험이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은 듣기 형태로만 진행되며 레벨이 낮다고 해서 수업방식이나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레벨인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저희 반은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일본 친구들과 대만 친구들 모두 영어를 잘하는 편이어서 수업은 항상 원활했고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업방식과는 다르게 항상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어서 자신감을 기르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숙제는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10분~20분 정도 투자하면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수업은 보통 그룹토론으로 많이 진행되며 다른 반이랑 다 함께 하는 발표 수업, 투어 등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즐거웠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저는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그러려면 인터넷과 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글 맵과 아이폰 지도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맛집 정보나 평점 등이 잘 반영되어있습니다. 인터넷</p>

	<p>을 사용하려면 유심이 필요한데 로밍보다는 해외유심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저는 데이터 무제한 해외유심을 구매했고 넉넉하게 22일을 신청했습니다. 기간에 딱 맞춰서 구매하시면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유심 작동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22일에 가격은 64000원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3주동안은 한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바지, 긴바지, 긴팔, 후드집업 등 여름 옷과 가을옷의 비율을 똑같이 해서 가져가세요! 하지만 옷은 캐나다에도 엄청 많으니 가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동전의 종류가 많으니 동전지갑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라고 하는데 사람도 엄청 많고 입장료에 비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밴쿠버에 갔으니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말 중 하루를 잡아서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다녀오세요. 멀지만 정말 아름다운 섬 입니다! 밴쿠버의 대표 놀이공원인 플레인랜드도 추천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놀이기구들도 너무 재미있었고 밤에 야경도 너무 예뻐니다.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때에는 밴쿠버에 있는 아무 세븐일레븐이나 가서 구매하시면 10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선글라스를 꼭 챙겨가세요! 낮에는 햇빛이 강합니다. 저녁이 되면 선선하고 춥다고 느낄 수 있으니 여러분의 후드 집업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밴쿠버는 생각보다 안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운타운 근처나 차이나타운 주변은 노숙자들도 많고 약에 취해 보이는 분들도 많으니 모른척하시거나 주의하세요!</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일단 홈스테이 가정에 가면 자신의 방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방도 아늑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O)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같은 경우는 놀러다니느라 거의 밥을 밖에서 먹었습니다. 캐나다는 외식비가 정말 비쌉니다. 그러므로 외부식당을 이용할 때 자신의 경비를 잘 계산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람당 12000~15000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저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거리에 살았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버스가 거의 직진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류장만 잘 외우고 다닌다면 어려울 건 크게 없습니다. 캐나다의 지하철인 스카이 트레인도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스카이 트레인도 복잡할게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700,000	옷, 와인, 쿠키, 화장품 등
식비	300,000	외식비
관광비	200,000	입장료, 페리이용 등
합계	1,2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개인 수건을 3개 정도 챙겨가시고 양말도 넉넉히 챙겨가세요. 캐나다는 일주일에 한번 빨래를 하기 때문에 매일 입는 속옷이나 양말 수건은 넉넉히 챙겨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여권사본과 여권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옷(반바지,반팔)과 가을옷(긴바지,긴팔)의 비율을 잘 맞춰서 챙겨가세요! 생각보다 덥거나 추울 수도 있습니다. 유심은 있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의 수업방식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수업이고 선생님의 역할보다 학생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수줍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노력하는 수업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p>		<p>키칠라노 해변 수영장</p>
		
<p>휘슬러 투어</p>		<p>빅토리아 아일랜드</p>



플레이랜드 야경



폭포